

# 필동에

# 인쇄업체 몰린다

## 최근 10여년간 1백여개 업체 이주

국내 인쇄업체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중구일대에 새로운 인쇄타운이 형성되고 있다. 오밀조밀 모여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현동, 충무로, 예관동, 을지로 일대 등의 인쇄타운 외에 남산 밑자락에 위치한 필동 일대가 중구의 새로운 인쇄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 필동의 역사

필동의 역사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시대 한성부 5부중의 하나인 남부의 부사무소가 필동에 있었는데 이를 좇아 부동이라 하였다 한다. 이후 발음이 같은 붓이라는 음을 빌려와 붓골이라 하기도 하였는데 부의 음과 필(筆)의 뜻이 서로 같기 때문에 붓골을 필동으로 표기하였다고 한다.

남산 밑자락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일대가 꽤나 부촌이었다고 한다.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 측의 모 인사가 이곳에 살았으며, 9대 국회의장을 지낸 김진만씨가 거주하는 등 꽤나 부촌(富村)에 속했다고 한다.

일대 최초의 인쇄업체가 어디에서 출발한 어느 업체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필동 일대에 인쇄업체가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에 즈음해 10여개 안

팍의 인쇄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93년 남산에서 필동2가와 3가를 가로지르는 개울이 복개되면서 복개도로를 중심으로 대형 업체 위주로 점차 인쇄타운이 형성되어 갔다.

충무로 인근에서 인쇄업을 경영하다 본격적인 인쇄타운이 형성되기 전부터 필동2가에서 인쇄업을 하고 있는 상원사 조상기 사장은 “80년대 중반만 해도 필동 인근에는 인쇄업체가 10곳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필동2가와 3가를 가로지르는 남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복개되면서 필동에 인쇄업체가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개울 복개이후 95년부터 필동으로 이동하는 인쇄업체가 점점 많아졌고, 특히 최근 2~3년간 40~50여개의 업체가 필동으로 이전해 2003년 현재 줄잡아 100여개에 이르는 업체가 필동을 근거지로 인쇄

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쇄업체만 이동하는 게 아니다. 80년대 중반 대봉지업사(대표 고봉기) 외에 지류도매업체가 전무했으나 2003년 현재, 소매 수준에 머물렀던 대봉지업사는 어엿한 자사 사옥을 가진 업체로 성장했으며, 필동에만 2개의 판매소를 갖춘 정한지류 판매(대표 민영호), 종이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효창지류판매(대표 이상범) 등 상당한 규모를 갖춘 업체들이 필동을 근거로 충무로와 을지로 일대까지 영업망을 넓혀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창기 진입을 망설이던 기획실들도 차츰 필동 일대로 진출하고 있다.

### 필동의 풍경들

필동에 위치한 인쇄업들은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우선 초창기부터 필동 일대로 입주한 업체보다는 인근 저동, 예관동 등을



지로나 충무로 일대에서 영업망을 확보한 후 진출한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로를 가진 업체의 상당수가 충무로와 을지로 시절의 시설 임대 업체에서 벗어나 자사의 건물을 가진 중견 인쇄업체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가 유난히 많은 것도 필동에 위치한 인쇄회사들의 특징인데 대략 30% 정도의 업체들이 개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도 인근 충무로와 을지로 일대에서 이전한 업체들이다.

이처럼 중견 인쇄업체들이 필동으로 몰려드는 이유로는 인쇄작업의 용이성이 첫째로 꼽힌다.

초동에서 필동으로 이전한 (주)한성칼라 배명수 대표는 “을지로에 있을 때는 골목도 비좁고 해서 작업하기가 여간 사나운

게 아니었다. 하지만 필동은 자기회사만의 공간이 확보되니 그런 점에서 보면 작업하기가 용이하다”고 말하고, “필동 지역의 특징이 자체 건물을 가진 업체들이 많다는 건데 이로 인해 작업동선이 크게 개선됐으며, 업무관리도 편해 졌다.

아울러 비슷한 업체들끼리 몰려 있다보니깐 상거래 질서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을지로가에서 필동으로 이전한 삼지애드 배준제 대표도 공장을 필동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배 대표는 “을지로에 있을 때는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서 고객들에게 민망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필동으로 이사한 지금에는 사무실도 너무 깨끗해져서 일하는 직원들도 만족하고 있고, 찾아오시는 거래처 고객 또한 쾌적한 사무공간에 크게 만족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주변 민원과의 갈등 잘 풀어야

인쇄업체들의 필동으로의 진출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에도 몇몇 업체들이 필동으로 공장을 이전했으며, 충무로3가에 위치한 근아인쇄(대표 조병우)도 올해 안에 공장 이전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중이다.

인쇄업체 입장에서는 보다 좋은 작업환경이 보장되는 새로운 건물로의 이전은 반길만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필동 동사무소 한 관계자는 “인쇄업체들로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인쇄업체들과 관련된 민원이 꽤나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고충을 들어냈다. 주변 토착주민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회복, 상생의 발전을 이루어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용우 기자 <photoyw@print.or.kr>



## 도심 한곳에 종이박물관이...

필동에 위치한 효창종이박물관(관장 이상범)은 국내 인쇄산업의 중심지를 자임하면서도 산업만 있는 충무로, 을지로 일대에서 나름대로 문화의 향기를 뽐내고 있는 곳이다.

박물관이라는 게 문화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산업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못하는 탓에 메이저 지류 회사에서도 계성제지와 팬아시아페이퍼만이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창지류판매대 이상범 대표 개인이 준비한 박물관이라 더더욱 뜻이 깊다.

효창지류판매대(대표 이상범) 필동 사옥(구 매일경제 옆 건물) 3층에 위치한 이곳은 2001년 9월에 개관되었으며, 개관 당시 746종의 품목을 전시해 세간의 관심을 끈바 있다.

전시관에 들어서면 종이의 역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두었으며, 종이로 만든 각종 공예품과 과거시험 차석 합격자의 시험용지, 명심보감 등 고전, 활판본 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옛날 초등학교의 교과서를 전시해 두었다. 이상범 사장 개인이 모은 소장품은 전시장에 전시된 품목보다 훨씬 많으나 박물관이 협소한 관계로 전시가 이루어지지 못한 품목들이 많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는다.